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

고창군은 고수면 봉산리 일원의 농어촌도로(리도206호선) 확포장공사를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리도206호선) 확포장공사는 군비15억, 특조금 10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도23호선에서 봉산마을로 진입하는 본선도로 780m와 연결도로 413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그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도로를 개선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활력산업단지로 인해 차량 통행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 관내에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부안군은 15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환경부 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가 150 μ g/m³ 2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고 다음날 75 μ g/m³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14일 오후 5시 10분 초미세먼지 ‘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15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된다.

군은 실제 훈련으로 도로청소 강화, 행정 차량 2부제, 공사장 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을 추진하고 관용차 운행 제한, 소방차 물 분사 등 서면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복분자 브랜드 가치 상승 ‘기대’

복분자 · 식초 산업 특구, 중기부 계획변경 승인 완료... 사업 추가 · 사업비 증액 가능

고창군은 지난 12일 복분자 · 식초산업특구의 사업추가와 사업비 증액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은 3년 기간연장으로 2026년까지 사업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특례 혜택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분자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창 복분자 · 식초산업특구는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508만

8404㎡ 대상으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복분자 테마파크(유원지) 조성사업,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복분자 전라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21개 세부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등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를 통해 고창지역의 여건에 맞게 육성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역 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신규사업으로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을 추가해 고창 복분자와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전시 · 프로그램 운영해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과 관광활성화 계획도 편입하였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제3호 고창 복분자주’, ‘제35호 고창복분자’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구 계획변경 승인을 계기로 복분자 · 식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창 복분자의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국회 방문해 김상훈 · 김윤덕 의원 등 만나 예산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제21대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으로서 전북 발전에 기여해온 김상훈 의원을 만나 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국회 방문으로, 정읍시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이날 이 시장은 제21대부터 현재까

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으로서 전북 발전에 기여해온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을 만나 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팻푸드 소재 산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

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과의 만남에서는 △고사부리성 복원 발굴조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망목정터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 사업들이 고증학적 역사가치를 드높이고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11월부터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국회 상주관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관계자, 정읍 출신 향우회, 사업 관련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예산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블루카본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14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블루카본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바다를 의미하는 ‘블루’와 탄소를 뜻하는 ‘카본’의 합성어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며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년동안 저장가능하여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과 맞물려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블루카본으로는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밭 등이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부안해양경찰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역주민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석해 부안군민의 적합한 블루카본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블루카본 조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 단

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안군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블루카본 조성을 통해 정부의 블루카본 확대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등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4 고창군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 ‘고창군 농업발전 방향’ 대주제 발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지난 13일 고창군 농업인회관에서 ‘고창군 농업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창군의회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 주관하는 것으로 고창군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조민규 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종훈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주제 발제자로 나서 ‘고창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임종훈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주제 발제에서 고창군 농업이 당면한 위기로 기후 변화, 농산물 가격 폭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각각의 처방으로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소주제 발제는 △기후위기에서 고창농업의 미래를 찾자(표주원, 농민회 사무국장) △고창군 청년농업인



에 대한 주거문제와 지원사업(오테양, 4-H회장) △농촌소멸 대응전략(안성준, 한농연 회장) △고창 쌀 브랜드화에 대하여(이주만, 수도권연구회장) △명품 고창수박 브랜드화를 위한 조건(정동표, 흑수박작목반 기술교문) △친환경 고창 쌀 상품화 전략(박종대, 한결RPC대표)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고창군 농업정책 토론회가 고창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농업정책 토론회와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관이 자주 마련되어서 한층 성숙한 토론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

치킨 기프티콘 추첨 제공

정읍시가 연말을 맞아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연말정산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읍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

제 혜택과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정읍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치킨 기프티콘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말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www. ilovegohyang.go.kr)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기)가 지난 13일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31일간의 회기중 13~21일까지 이어지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위해 그간 철저한 자료준비와 점검,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 군민의견 접수 등 집행부

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교부세 감소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예산 집행의 적절성, △인구소멸에 따른 대응 정책의 실효성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